

(서식 3)

자 기 소 개 서

소 속		직 위		성 명	
-----	--	-----	--	-----	--

1. 지원동기

저는 시골 출생으로 자연과 호흡하며 자랐습니다. 숲속에서 전쟁놀이, 냇가에서 고기잡이, 추운 겨울에는 눈두렁을 달리며 연날리기, 제기를 차면서 행복하게 자라왔습니다. 초등학교시절에는 선생님의 칭찬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를 하였고 중.고등학교 시절엔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많은 고민과 방황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일이 교육이라고 가족과 선생님들의 조언으로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왔기에 살아가면서 그 빛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저의 교육철학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며 가르쳤고 또 아이들로부터 배우며 함께 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보다 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로 아이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교육은 무엇일까?’ 어린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심어주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을 해왔습니다.

어린이들이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삶의 태도를 가꾸기 위한 터전이 필요함에 따라 아이를 따라가는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아이들의 취미, 특성, 재능을 살려 운영함으로써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2. 배우며 살아온 교사

1990.9.1.바닷가 시골 학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시골 아이들을 대하면서 저도 아이처럼 살았습니다. 체육시간에는 함께 공을 찼고, 특별활동 등 하나라도 더 가르치기 위하여 젊음을 쏟으며 살아왔습니다.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아이들 때문에 배드민턴을 배워서 함께 했고, 아이들이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 풀루트를 배워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음악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바이올린을 많이 배우므로 바이올린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혁신학교를 신청하여 혁신을 맡았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고단한 업무였지만 모든 학급에 악기를 사준다는 말에 솔깃하여 맡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풀릇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반 아이 26명분 26개를 신청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교장 선생님이 다 사주셨습니다. 다들 놀랐습니다. 설마 했는데 통 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급에서 바이올린, 클레식기타, 우크렐레 등 음악을 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배워다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배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저보다 연주를 잘 합니다. 인성교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살면서 악기 하나 다룰 줄 아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리라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일이 어려웠지만 책을 읽으며 걸어가다 전봇대에 부딪혀 흠이 나가지고 온 아이, 수학여행을 가면 잠을 자지 않고 놀면서 저를 뜯눈으로 지새우게 한 아이들, 풀릇을 가지고 아침마다 연습을 하여서 아름다운 음악소리를 들려주어 등교하는 발걸음을 즐겁게 해 주던 아이들. 가끔 편지를 주어 고맙다고 인사하시는 학부모님의 소리가 힘든 저에게 힘을 주어 지금까지 교단을 지켜오게 되었습니다. 또 해마다 감동을 주는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 더 굳세게 자라주는 모습은 교단에 있는 저에게 기쁨과 힘을 주어 항상 새롭게 해 주었습니다.

3. 다리역할의 교감으로

2013.9.1.일자 승진으로 같은 학교에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혁신학교를 이끌어왔던 점을 생각하여 혁신학교를 이어가라는 뜻으로 그 자리에 발령을 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부담도 많이 되었습니다. 같은 교사로서 있다가 교감으로 승진을 했으니 다른 사람들은 어렵겠다고들 격려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교사들이 같은 교사로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머리를 긁적이며 아니 교감선생님인데..... 괜찮다고 웃으며 넘기며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인심은 잃지 않았는지 선생님들이 잘 따라 주어 어려운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도움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발 벗고 나서 도움을 주었고 궂은 일은 팔을 걷고 함께 해주었습니다. 특히 전학년 김장체험은 잊을 수가 없는 하나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교감의 역할은 참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튀어서도 안되고, 누려서도 안 되는 없는 듯 하면서 일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한가지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웃는 얼굴로 가르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항상 격려와 칭찬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더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한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공동체가 함께 생각을 모으고 방향을 잡아가야 했습니다. 어린이들의 민주적 자치 활동을 활성화 시키며, 학부모님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면서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들어왔습니다.

먼저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학생이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소통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항상 발표와 토론을 중시하였습니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5~6학년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다 모여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학교발전의 힘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모은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될 줄을 몰랐습니다.

다음으로 성장이 목표였습니다. 날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가르친다고 잘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싫어합니다.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따라가는 수업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즐겁고 배우는 아이도 즐거운 배움이 시작되었습니다.

4. 설레임으로 교장 공모

수려한 환경에 위치하고 있는 남관초등학교는 특색사업으로 공감.소통.나눔을 통한 창의 인성함양, 노력중점으로 독서.논술.토론의 신장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바르고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학생·교사·학부모 지역사회 교육공동체가 한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또 혁신학교 어울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목적에 맞도록 행복한 학교, 성장하는 학교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변화하는 교육패러다임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이 배움에 즐거움이 있고, 스스로 일어서는 잠재능력 개발에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미래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따뜻한 마음을 품은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잠재적 힘인 선생님과 학부모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문학 공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겠습니다.

기초·기본교육에 충실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지금과는 다른 직업군들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기본교육이 튼튼해야 당황하지 않고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자신의 꿈을 향하여 가는 어린이는 눈빛이 다릅니다. 할 수 있다는 도전정신과 긍정적 마음으로 성장한다면 교육공동체도 역시 행복할 것입니다. 어린이의 행복으로 저의 행복을 만들어가겠습니다.